

# 제15회 평의원회 회의록

## □ 개 요

○ 일 시 : 2023. 07. 05.(수) 15:30 ~ 17:30

○ 장 소 : 행정본관(E14) 제1회의실

○ 참석자 : 재적 평의원 11인 중 10인 참석

- 신하용(의장), 이창준(부의장), Mohammed Haruna Hamza, 고정식, 김소영, 김유승, 박성동, 유승화, 이동민, 이희승

※ 대리인(1) : 기획처장 김경수

※ 배석자(4) : 국제화진흥추진단장 서평송, 시설부장 서용석, 경영전략팀장 전효리, 국제교원및학생지원팀장 이주영

## □ 주요 논의결과

○ [제1호] 전기(제14회) 회의록 보고

-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함.

○ [제2호] 2022년 외국인 구성원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

- 2022년 외국인 구성원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 서평송 국제화진흥추진단장의 설명이 있었음.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응답 및 의견 등이 있었음.

1. (Q) 외국인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 및 캠퍼스 국제화 등을 위해 외국인 구성원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있는지?

(A) 국제협력처 산하 국제교원 및 학생지원팀에서 약 1,000여명의 KAIST 외국인 구성원을 위해 안정적인 정착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의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2. (Q) 외국인 구성원들이 한국사회와 KAIST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업을 도입·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A) 현재 KI House에서 한국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 제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3. (Q) 외국인 학생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학생의 경우 VISA로 인해 캠퍼스 밖 근로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난 해부터 교내 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임.
4. (Q)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학업적인 어려움'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A) 외국인 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업적인 어려움은 한국과 다른 교육과정 및 선행학습 정도 등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Tutoring, Buddy Program, Couching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5. (Q) 외국인 학생이 졸업 이후 취업 등의 문제로 인해 한국에 정착하기 어려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는지?  
 (A) 일부 외국인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남아있으나,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임.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정착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제3호] 학생기숙사 리모델링 현황 보고

- 학생기숙사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 서용석 시설부장의 설명이 있었음.
- 동 안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응답 및 의견 등이 있었음.

1. (Q) 현재 학생기숙사 활용 현황은 어떠한지?  
 (A) 코로나19 이후 Privacy 이슈와 주방시설 선호 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 밖 거주를 희망하고 있어 현재 기숙사는 여유가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일부 2인실을 1인실로 변경하는 등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Q) 학생기숙사 리모델링 시 취사가 가능한 주방 설치는 어려운지?  
 (A) 학생기숙사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방 설치는 어려운 상황임. 다만, 외국인학생 기숙사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 공동주방을 설치한 바 있으므로, 학생기숙사 내에 공동 주방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음.
3. (S) 학생기숙사 리모델링 시 개별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A) 개별 화장실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다만, 샤워실에 대해서는 개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제4호] KAIST 부설 충북 AI 영재고 설립 추진현황 보고

- KAIST 부설 충북 AI 영재고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 전효리 경영전략 팀장의 설명이 있었음.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응답 및 의견 등이 있었음.

1. (S) 현재 KAIST 부설기관인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KAIST 입학 등 현안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재학교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잘 고려하여 설립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2. (S) 영재학교 설립 관련 Hardware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잘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것은 Software이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인재상을 가지고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교육할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A) 충북 AI 영재고의 인재상과 교육과정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위해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TFT를 구성하여 논의할 예정임.